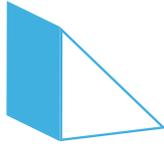


수



능



특



강



김채원, 「겨울의 환」

- 갈래 : 현대소설
- 성격 : 고백적, 성찰적, 회상적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 한 중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EBS

해제

이 작품은 마흔세 살이 된 중년의 여성을 서술자로 등장시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중편 소설로,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주제

한 중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전체 줄거리

'언젠가 당신은 제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한번 썬 보라고 말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서술자는 마흔셋의 나이에 들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생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서술자는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포용하게 된다. 이제 서술자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결핍된 것으로서가 아닌, 베풀어야 할 것으로서의 사랑임을 깨닫는다. 그녀가 말하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것도, 그리고 다시 만난 옛날 이웃 동무인 '당신'에 대한 애뜻한 정도 모두 이 사랑으로 연결된다. 마흔을 넘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이야말로 소설의 서두에서 말한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채원, 「겨울의 환」

늙어 가는 사람의 떨림이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늙어 가는 사람의 떨림이라기보다 늙어 가는 여자의 떨림이란 말이 훨씬 자연스
↳ 의문과 추측의 문장 종결

러운 것이고 보면 제가 스스로를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저의 성을 찾아 여자가 된 것이, 그 자각이 이제라도 기쁨으로 다
가오기도 합니다. → '나'가 '늙어 가는 사람의 떨림'보다 '늙어 가는 여자의 떨림'이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각을 '사랑'에서 '여자'로 구체화한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냄.(교백적 어조)
그러므로 저는 비로소 여자에 눈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각이 하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할머**
↳ 의문과 추측의 문장 종결 ↳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대의 흐름을 통해 축적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는 인식.

니, 이분들은 내가 실제 보았던 인물들이고, 말로만 들었던 증조할머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선조의 여자들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인맥을 통해 면면히 흐르는 여자로서의 숙명 같은 것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숙명감,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모(母)라는 의미, 결연히 인생과 마주한 여자로서 서야 하는, 또한 그
중에서도 **동양의 여자,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의 여자**, 이런 의미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 받을 만한 서구의 자연,
↳ 지역과 환경을 언급하며 서구와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정체성 탐색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그리고 그들의 깨어 있는 문화가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 저는 한때 그 개인주의에 공감하고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만 **서구의 개인주
의와 동양의 미덕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망연히, 그러나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 동양에서의 여성의 정체성이 서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자각.

우리가 서양에서만 보던 서양의 잣나무와 솔바람을 품어 안는 소나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자각,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동양권
↳ 서술자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인 이 공간 속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운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 의문과 추측의 문장 종결

(중략)

집에는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다. 인원은 대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섰다가 아닌 민화투로서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머니의 방황.

으로 미루어 보아 판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투를 짹짹 따듬어 치다가 늦은 저녁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서**
↳ 교사까지 지낸 인물로 할머니와 달리 전통적인 여성성(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지 못한 인물.

떨고 있는 동생과 내게 소리치셨습니다. 다락문을 열어보면 부엌에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애 가혜야,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다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더 풀고 두부 한 모 썰어 넣고 마늘 다져 넣고 보글보**
↳ 서술자 ↳ 따뜻한 밥을 차려 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간접 제시(장면 제시)”

글 끓여라. 그리고 머무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밥하구 상을 차려서 좀 가지구 들어와라, 응. 김치는 새것을 썰어라.”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몸을 일으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막숟가락과
양재기를 하나 가지고 된장을 푸러 어두워진 장독대로 더듬어 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는, 교사까지 지낸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이었을까요**. 더구
↳ 나(서술자)와 동생을 지칭 ↳ 과거의 서술자가 어머니에 대해 거리감을 갖게 되는 계기 ↳ 의문과 추측의 문장 종결

나 신비감도 없이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에다가,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정말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댄 방
이라고는 화투 치는 방뿐인데,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는 데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
다. → 집에는 화투 손님 ~ 있었을 것입니다. : 어린 시절 회상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었다면, 첫째는
↳ 현재의 어머니가 자신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근거

우리 집의 장맛이 좋았을 것이고(그것은 어머니의 손이 단 데 연유했을 것입니다만, 아니 그보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쭈어 오신 메주
에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먹던, 의 바로 그 먹던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끓였던 것에다 다시 끓이
↳ 의문과 추측의 문장 종결

면 그만큼 재료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 결과가 되고, 아울러 푹 달구어진 맛이 우리나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음식에서 늘 영양가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또 아무리 조금 남은 것이더라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그런 것들이 늘
찌개에 들어가게 마련이어서 두루뭉수리 독특한 찌개 맛을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된장찌개의 맛을 어머니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음.
이렇게 정교 내리듯 생각해 보지만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즉, 된장찌개에 가
장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파를 썰어 넣는 일이 대개 빠져 있었습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음식에서 항상 그 파와 같
은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 어머니 음식에서 아쉬움의 감정을 느끼를 드러냄.

음식점에서 장국밥을 처음 먹어 보던 날, 음식점 특유의 그 짙은 맛이 후춧가루와 깨소금, 파 같은 양념들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후춧가루라는 처음 맛보는 양념에 거의 경의마저 품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왜 후춧가루와 파와 같은 부분을 생략했는가. 가난했던 탓일까. 그 당시는 전후로서 모두들 대강 그냥 끓여 먹고 살던 시절
이었다고 생각해 보려 해도, 그 후 이웃집이나 친구들 집이 그런 것들을 점점 갖춘 생활로 변해 감에 비해 우리 집은 항상 그대로였습
니다. ↳ '어머니의 사랑'을 시큰둥하게 넘기는 이유.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은 몽똥그러진 음식이었습니다. → 우리 집과 이웃집이나 친구들 집을 대비하여 어머니의 음식에서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함.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시큰둥하게 넘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뿐더러 **어머니의 음식**이 설혹 맛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 따뜻한 밥상과 대조.

것이 늘 우리에게 먹게끔 해 주었던 그런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는 인상 때문입니다.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 어머니의 보살핌에 대한 그리움.



김채원, 「겨울의 환」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 '어머니의 음식'과 대조.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 주고 물을 떠다 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닦쳐오는 세 끼의 밥을 따뜻이 먹게끔 차려 주는 여인이 비치어 옵니다. 대부분의 옛 여인의 모습이 그랬을 것입니다. ↳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모습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실지 제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솔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깨부순다

↳ 대부분의 옛 여인과 다른 삶을 산, 어머니와 자신의 삶에 대한 재인식.

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에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부엌에서 찬바람 같은 것이 돈다고 할까요.

↳ 어머니와 '나'가 대부분의 옛 여인의 모습과 다름을 직접 제시. 어머니와 '나'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됨.

작품의 특징

- 서술자는 담담한 어조로 '나'의 내면에 대한 자각과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고백함.
- 의문과 추측의 종결어미('~지 않습니까(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었을까요.'를 활용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태도를 드러냄.
- 특정 소재(된장찌개)를 통해 과거에 서술자가 어머니에 대해 느낀 거리감을 표현함.
- 할머니,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자기 고백을 담음.
- '나'의 내면에 떠오르는 특정한 이미지들(음식, 할머니)을 중심으로 서술함.
- 작품 전체적으로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건 중심이 아닌 서술자의 내면 심리 중심으로 서술함.



이상, 「날개」

- 갈래 : 단편 소설, 심리 소설, 모더니즘 소설
- 성격 : 고백적, 상징적
- 배경 : 시간-1930년대, 공간-경성(서울)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 무기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와 그 한계
- 공간 이동 :

방	→ 공간의 이동 (외출=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려는 노력)	거리
-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 - 무기력, 무능력한 태도로 종속적인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이 드러남.		- 개방되고 열린 공간. - 자아의 해방과 회복으로 '나'의 태도가 의지적으로 바뀜.

-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
인간의 잠재 의식의 흐름을 충실히 표현하려는 문학상의 기법을 말한다. 이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외부에서보다는 정신의 과정에서 더 잘 발견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 기법은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 반대한 심리주의의 기법으로, 외면 세계의 묘사보다는 내면 세계를 추구하여 심층 심리 탐구에 주력한다.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과 연관성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로는 이상의 「날개」 외에도 선우희의 소설 「불꽃」과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나타난다.

#EBS

해제

이 작품은 밝게 벌이 드는 아내의 방과 달리 어두운 방에서 생활력 없이 지내는 '나'의 상념을 통해 무기력한 인물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소설과 다른 서술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

무기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와 그 한계

전체 줄거리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나'가 하는 일이란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거나 아내의 화장품을 가지고 노는 '장난' 정도이다. 이처럼 무기력한 존재인 '나'는 아내의 내방객을 피해 길거리로 나서서 배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출에서 일찍 돌아온 '나'는 아내가 손님과 벌이는 일을 보게 된다. 밤 외출로 인해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아내가 사다 주는 약을 먹게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의 일종인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거리로 나선 '나'는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에, 지금은 박제가 되어 버린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날개가 다시 돌아 날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의식한다.



이상, 「날개」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운은 내 체운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을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그날을 그저 까닭 없이 편둥편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 안에서 뒹굴고 지내는 주인공의 무기력한 모습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똑 일곱째 칸이다.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라

↳ 아내의 방

↳ '나'와 '아내'의 단절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근대인들의 문제 상기.

↳ 고립되고 폐쇄적인 '나'의 방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 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 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별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별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불평이 없다. ↳ 경제적으로 무능한 '나'가 아내에게 연속되어 가생하고 있음을 드러냄.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 놓고, 열어 놓으면 들이비치는 별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 아내와의 단절된 관계로 인한 행동

↳ 경제적으로 무능한 주인공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오락거리

비쳐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 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쪼끄만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휴지)를 끄실러 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 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 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끄실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는 고 열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이 싫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 돋보기와 거울을 가지고 하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위한 장난

이 장난도 곧 싫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서 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고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고것들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중의 하나만

↳ 싫증을 내면서 이어 가는 행위, 서술자인 '나'가 권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

↳ 화장품 냄새를 맡으며, 아내의 체취를 생각함.

↳ '나'가 아내의 화장품 냄새를 맡고 즐기는 것은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임.

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이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관능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프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막고 생각해 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내음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은 '나'의 심리가 드러남.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내 방이 벽에 못 한 개 꽃치지 않은 소박한 것인 반대로 아내 방에는 천장 밑으로 쪽 돌려 못이 박히고 못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 좋다. 나는 그 여러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胴)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고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중략)

↳ 목적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냄.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포시 욕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 193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계 백화점의 이름(시대적 배경). '나'가 지난 삶을 돌아보는 공간.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 '나'의 자기 극복 의지 ① ↳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지만 기억에 남을 가치 있는 일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는 자책감.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 '나'의 자기 극복 의지 ② ↳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줌.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 외부의 상황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들 만큼 의식이 거의 없어진 상황임.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 ↳ 굽어 있던 의식을 일깨워 주는 대상.

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 지느러미의 움직임은 굽어 있던 '나'의 의식의 꿈틀거림을 상징하면서 '나'의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함.

↳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이자 '나'의 의식을 일깨우는 공간.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 회색의 탁한, 혼탁한 일상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쉼 없이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이상, 「날개」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 '나'의 자기 극복 의지 ㉓



작품의 특징

-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나'의 분열된 내면을 효과적으로 서술함.
-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이고 뚜렷한 인과 관계가 없이 서술됨.
- 아내에 기생하는 무기력한 '나'를 통해 자아 분열을 그린 한국 최초의 심리 소설임.
- 주인공 '나'의 자폐적인 내면세계를 '방'이라는 밀폐된 구조로 표현함.
- 공간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식의 변화를 제시함.
- 상징적 장치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냄.
- 남녀의 관계 역전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분열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이광수, 「무정」

- 갈래 : 계몽소설, 연재소설, 장편소설
- 성격 : 계몽적, 근대적, 설교적, 민족적
- 배경 : 시간-1910년대 개화기, 공간-서울, 평양, 삼랑진 등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근대 초기의 민족적 현실
- 주제 :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
- 등장인물 :

박영채: 봉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형적 여성이었다가 근대적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인물. 유교 교육을 받은 순종적인 여인. 이형식의 옛 은사인 박진사의 딸, 형식의 어린 적 친구. 양반 집에서 태어나 유교 교육을 받았으나 애국지사로 투옥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됨. 내심 형식을 사모하며 절개를 지켜 왔으나, 경성학교 교주의 아들 김현수에게 청량사에서 겁탈 당한 뒤 평양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려 떠났다가 병옥을 만나 신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녀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가 형식과 선형(신혼여행 겸 유학길)을 기차 안에서 만난다.

여학생(=병옥): 진취적이고 이성적인 인물. 신교육을 받은 적극적 여성으로 불쌍한 영채를 도와 유학까지 시켜 줌.

이형식 : 주인공. 선각자적 지성과 계몽 의식을 지닌 인물. 개인과 민족,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 고뇌하는 인물. 신교육을 받았고 지극히 도덕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 이익을 결국 받아들이나 인정적 의리 때문에 선형과 영채 사이에서 방황하는 어린 마음을 지녔다. 진취적 기상을 가졌고 선형과 결혼하여 미국 유학을 함.

김선형 : 기독교 집안의 개화한 신여성. 이형식의 약혼녀로 부자이고 양반이며 신사상을 본받으려는 집안 상황 속에서 신교육을 받았으나 구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신교육을 더 받기 위해 미국에 유학감.

• ‘무정’의 계몽성과 대중성 :

낡은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계몽의식과 함께 인물 간의 애정 관계를 부각시켜 신교육이라는 주체 의식과 재미 모두를 강조한다.

계몽성 신교육을 통한 근대적 의식의 고취	+	대중성 인물간의 삼각관계의 연애 구도
---------------------------	---	-------------------------

• 주제와 관련한 ‘무정’의 주요 내용 전개 :

- 이형식의 변모 과정: 이형식은 영채와 선영의 애정 대상이었지만 영채와 선영으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교사(敎師)의 위치로 옮겨 가고 있다.
- 영채와 선영의 갈등 해소: 영채와 선영은 형식을 사이에 두고 연적(戀敵)의 관계에 놓여 있었으나 민족의식에 대한 깨달음과 민족적 일체감에 눈뜨면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된다.
- 민족주의, 계몽주의가 등장인물들에게 주는 감동: 무지한 동족을 교육으로 계몽해야 한다는 인식은 영채, 선영, 형식, 병옥 등에게 선구자적인 소명 의식을 일깨우면서, 강한 일체감에서 오는 감동을 주게 된다.
- 지식인의 시혜적 성격: 시혜적 성격은 상대방을 피동적이고 열등한 상태로 파악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수재민에 대한 이형식의 시혜적 성격은 이광수 민족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민족에 대한 금지와 민족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개량주의적인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후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 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EBS

해제

이 작품은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당대 독자들의 성원을 받는 한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선각자적 지성과 계몽 의식을 지닌 형식, 봉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형적 여성이었다가 근대적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영채, 개화기 신여성인 선형, 진취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인 병옥 등의 젊은 주인공들을 내세워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연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

전체 줄거리

이형식은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로, 김 장로의 딸인 선형을 지도하게 된다. 형식은 선형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인 박 진사의 딸, 영채를 다시 만나면서 영채와의 관계를 고민한다.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는 경성학교의 배 학감에게 순결을 빼앗기게 되자 절망한다. 하지만 영채는 우연히 동경에 유학 중인 병옥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유학을 결심한다. 형식은 선형과 약혼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기차에서 영채와 병옥을 만난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수재민을 구호한 후 함께 교육으로 민족을 계몽할 것을 다짐한다.



이광수, 「무정」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 전지적 서술자가 영채의 판단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 형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해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음.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섭거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칠팔 연대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 부친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봉건적 가치에 따른 것임.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 부친의 당부를 지키는 일.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깐 지금껏 찾으셨습니다그러—**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 형식에 대한 영채의 감정이 의무적이고 당위적인 것이었음.

“예.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제 그리운 생각이네요.”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든지 아이 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깐.**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 어릴 적 가지게 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 남녀 간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깐 생각던 바와 다름데**

↳ 영채의 어릴 적 기억 속에서도 형식이 특별한 존재였음.

다. 어쩐지 일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

↳ 형식과 재회하고 보니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형식에 대한 관념과, 직접 만난 형식의 모습이 차이가 있었음.

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그러.”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깐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 오던 사람과는 딴사람 같어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 형식에 대한 반가운 감정이 들기는 했지만, 마음 속에 그려 오던 사람과 달라 당혹스럽게 느껴졌음.

“**알았습니다.**” ↳ 영채가 형식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던 말이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 정절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으로 인한 결심.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에 정절을 더럽히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 영채가 죽을 결심을 했던 원인.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 형식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함.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 있는 목소리로 ↳ 영채가 형식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아님.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 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칠팔 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야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 '절'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키는 것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외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허니깐 지금 영채 씨가 그이를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古聖)*의 교훈도** 있는데.”

한다. ↳ 옛 성인의 교훈. 전근대적 여성이 추구했던 봉건적 가치이자 영채가 추구했던 가치.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허깨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 영채가 낡은 가치관에 얽매어 살아왔음.

↳ 봉건적인 가치관이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함.

마음을 허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 ↳ 부친이 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독립된 주체로서 상대방에 대해 알고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음.

어요. 허니깐 영채 씨의 과거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생활이 열리지요.”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녀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봉건적 가치관에 어긋남.

없었고 다만 허깨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형식을 찾다가 이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아, 이제는

↳ 영채가 형식을 만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광수, 「무정」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매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
기존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남은 사고를 깨닫고) 사람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함.

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 근대적 가치에 눈뜸. 계몽주의 사상이 드러남.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시하는 근대적 삶.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고성: 옛날의 성인.



작품의 특징

-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영채의 시선을 중심으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사건을 해석하고 있음.
-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된 당대의 현실을 재현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질문함.
-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와 의식, 행동이나 대화의 외연적 의미까지 모두 서술자가 설명함.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임.
- 구어체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현대적인 문체 확립에 기여함.
- 자유연애사상과 계몽의식을 표면화한 계몽주의 문학.



김유정, 「떡」

- 갈래 : 단편소설, 세태소설
- 성격 : 사실적, 풍자적
- 배경 : 시간-1930년대, 공간-어느 시골 마을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제재 : 떡
- 주제 : 일제 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삶과 몰인정한 세태

#EBS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몰락한 농민의 딸인 옥이의 일화를 통해 당대 민중의 비참한 삶의 모습과 이를 둘러싼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한때는 소작농이었으나 땅을 잃고 극도의 가난 속에 살아가는 옥이네 가족의 모습,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음식을 먹은 탓에 고통을 겪는 옥이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농촌 빈민들의 실상을 대변한다. 또한 옥이를 동정하기보다 냉대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동네 계집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비정한 세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삶과 몰인정한 세태

전체 줄거리

일곱 살 난 옥이의 부모는 한때 소작농이었으나 땅을 잃고 개똥네 집에 빌붙어 산다. 옥이의 부친인 덕희와 옥이 어머니는 생계 능력이 별로 없어 우중충한 방에 누워 배고픔을 견디는 날이 많고, 덕희는 게으른 데다가 걸핏하면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한다. 죽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에 옥이는 늘 먹을 것을 갈구하면서 지내며, 덕희는 그런 옥이를 모질게 대한다. 하루는 개똥 어머니가 지주인 도사댁 생일 잔치에 가는데, 그 뒤를 옥이가 따라나선다. 잔칫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옥이를 박대하지만, 도사댁 작은아씨는 웃으면서 옥이에게 큰 대접에 국밥을 맡아 준다. 작은아씨는 옥이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을 차례로 내어 주고, 옥이는 이미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떡들을 받아 꾸역꾸역 씹어 넘긴다. 동네 계집들은 옥이의 그런 행동을 말리지 않고 구경거리로 삼는다. 옥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은 것을 전부 게워 내고는 앓다가 겨우 살아난다.



김유정, 「떡」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내려나. 올엔 ^{덕희(=옥이 아버지)}자네 꼭 굶어 죽었네. 하면 ^{덕희(=옥이 아버지)}친구 대답이 이거 왜 이라, 내가 누구라구, 지금은 발뽀기 하나 부칠 거 없어도 이라 배두 한때는 다— 하고 펼쩍 뛰고는 ^{덕희의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말.}지난날 ^{덕희(=옥이 아버지)}소작인으로서 땅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그러나 업신받는 데 약이 올라서 ^{덕희가 소작농이었다가 몰락했음을 알 수 있음.}자네들은 뭐 좀 난 상부른가* 하고 낮을 붉히다가는 풀밭에 슬며시 쓰러져서 늘 ^{임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의 폐해로 마을 사람들 역시 덕희만큼이나 곤궁한 상황임.}어지개 아리랑 타령.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서술자. 인칭 관찰자.}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반어적 표현.}당최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영문을 모른다. 그 집도 제 것이 아니요 개똥네 집이다.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또 거기다 산 밑에 외따로 떨어진 집이라 ^{도우지}건넌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덜 ^{도우지}호젓할까 하고 빌린 것이다. 물론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발괄*로 뻥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보 ^{개똥네가 덕희 가족에게 방을 빌려준 이유.}수는 별반 없고 ^{후이져서 무서움을 느낄 때는 고요하다. 매우 홀가분하여 쏙쏙하고 외롭다.}농사 때 바쁜 일이나 있으면 좀 거들어 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 하고 무척 좋았다. ^{덕희 가족이 방을 빌리는 대가.}하나 사람은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함.}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집 건넌방은 ^{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덕희의 집(묘사). 열악한 주거 환경.}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현 벽에다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은데 겨울 같은 입을 것과 먹을 것도 필요함. ^{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덕희의 집(묘사). 열악한 주거 환경.}때 좀 들여다보면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씩 가관이다. 윗목에는 옥이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옥이의 모습.}배가 고프다고 킹킹거리고 아랫목에는 화가 치뻔친 아내가 나는 모른다 듯이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누워서 는 ^{굶주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옥이 어머니와 덕희의 모습.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대책 없이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하층민의 모습.}꿈쩍 안 하고 높은 아내와 딸 사이에 한 자리를 잡고서 천장으로만 눈을 멀뭇멀뭇 등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치 꼴들이 말 아니다. 아마 먹는 날보다 이렇게 지내는 날이 하루쯤 더할는지도 모른다. ^{굶주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옥이 어머니와 덕희의 모습.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대책 없이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하층민의 모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배고픔에 시달리던 옥이는 지주인 도사댁 생일잔치에 가는 개똥 어머니의 뒤를 따라나선다. 잔칫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옥이를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함.}박대하는데, 도사댁 작은아씨는 웃으면서 옥이에게 큰 대접에 국밥을 맡아 준다. 작은아씨는 옥이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들을 차례로 내어 준다.

만약 ^{도사댁 작은아씨가 떡을 내어 준 순서.}이 떡의 순서가 주악*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팔떡 이렇게 나왔다면 옥이는 주악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백설기 팔떡은 단연 아니 먹었을 것이다. ^{눈으로 직접 본.}너는 ^{서술자가 서술자에게 질문할 것을 가정하여 진술한 문장. 사건의 전모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데 기여.}보도 못하고 어떻게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판소리 사설과 유사함.}그리 남의 일을 잘 아느냐. 그러면 그 장면을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판소리 사설과 유사함.}목도한 개똥 어머니에게 좀 설명하여 받기로 하자. ^{옥이가 떡을 먹는 사건을 목격한 개똥 어머니의 증언(직접 인용)}아 참 고년 되우는 먹읍디다.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구 그래 떡을 또 먹어유. 그게 배때기지유. 주악 떡을 제 나는

인제 죽나 부다 그랬슈. 물 한 모금 안 처먹고 ^{개똥 어머니가 옥이의 행동을 수수방관한 데 대한 '나'의 나무람.}꼬기꼬기 씹어서 ^{거리고 미워함.}꼴딱 삼키는데 아 눈을 요렇게 뽀뽀고 ^{거리고 미워함.}꼴딱 삼킵디다. 온 이게 사람이야, 나는 간이 콩알만 했지유. 꼭 죽는 줄 알고, 추워서 달달 떨고 쏘는 꼴 하고 참 짹짹해서 내가 다 소름이 쏙쏙 끼칩디다. ^{거리고 미워함.}이걸 가만히 듣다가 ^{거리고 미워함.}그럼 왜 ^{거리고 미워함.}말리진 못했느냐고 ^{거리고 미워함.}탄하니까 ^{거리고 미워함.}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 하나마 ^{거리고 미워함.}배고파 먹는 걸 무슨 ^{거리고 미워함.}혐의로 못 먹게 하겠느냐고 ^{거리고 미워함.}되려 성을 발끈 낸다. ^{거리고 미워함.}그러나 ^{거리고 미워함.}요건 ^{거리고 미워함.}빨간 거짓말이다. ^{거리고 미워함.}저도 다른 계집 마찬가지로 ^{거리고 미워함.}마루 끝에 서서 ^{거리고 미워함.}잘 먹는다 ^{거리고 미워함.}잘 먹는다 ^{거리고 미워함.}이렇게 여러 번 ^{거리고 미워함.}칭찬하고 ^{거리고 미워함.}갈갈대고 ^{거리고 미워함.}했었음에 ^{거리고 미워함.}틀림없을 게다. ^{거리고 미워함.}→ 동네 계집들뿐만 아니라 개똥 어머니도 옥이의 행동을 구경거리의 삼아, 보고 즐거워했음. ^{거리고 미워함.}옥이의 이 ^{거리고 미워함.}봉변은 ^{거리고 미워함.}여지껏 ^{거리고 미워함.}동리의 한 ^{거리고 미워함.}이야깃거리가 ^{거리고 미워함.}되어 있다. ^{거리고 미워함.}할 일이 없으면 ^{거리고 미워함.}계집들은 ^{거리고 미워함.}몰려 앉아서 ^{거리고 미워함.}그때의 일을 ^{거리고 미워함.}짚고 ^{거리고 미워함.}까불고 ^{거리고 미워함.}서로 떠들어 댄다. ^{거리고 미워함.}그리고 ^{거리고 미워함.}옥이가 ^{거리고 미워함.}마땅히 ^{거리고 미워함.}죽어야 ^{거리고 미워함.}할 걸 ^{거리고 미워함.}그래도 ^{거리고 미워함.}살아난 ^{거리고 미워함.}것이 ^{거리고 미워함.}픽이나 ^{거리고 미워함.}이상한 ^{거리고 미워함.}모양 ^{거리고 미워함.}같다. ^{거리고 미워함.}판은 ^{거리고 미워함.}사날이나 ^{거리고 미워함.}먹지를 ^{거리고 미워함.}못하고 ^{거리고 미워함.}몸이 ^{거리고 미워함.}끓어서 ^{거리고 미워함.}펄펄 ^{거리고 미워함.}떠며 ^{거리고 미워함.}얹을 ^{거리고 미워함.}만치 ^{거리고 미워함.}옥이는 ^{거리고 미워함.}그렇게 ^{거리고 미워함.}혼이 ^{거리고 미워함.}났던 ^{거리고 미워함.}것이다. ^{거리고 미워함.}하지만 ^{거리고 미워함.}처음부터 ^{거리고 미워함.}짜장 ^{거리고 미워함.}가슴을 ^{거리고 미워함.}죄인 ^{거리고 미워함.}것은 ^{거리고 미워함.}그래두 ^{거리고 미워함.}옥이 ^{거리고 미워함.}어머니 ^{거리고 미워함.}하나뿐이었

다. 아파서 ^{거리고 미워함.}드러누웠다 ^{거리고 미워함.}방으로 ^{거리고 미워함.}들어오는 ^{거리고 미워함.}옥이를 ^{거리고 미워함.}보고 ^{거리고 미워함.}고만 ^{거리고 미워함.}벌떡 ^{거리고 미워함.}일어났다. ^{거리고 미워함.}왜 ^{거리고 미워함.}배가 ^{거리고 미워함.}이 ^{거리고 미워함.}모양이나 ^{거리고 미워함.}물으니 ^{거리고 미워함.}대답은 ^{거리고 미워함.}없고 ^{거리고 미워함.}옥이는 ^{거리고 미워함.}가만히 ^{거리고 미워함.}방바닥에 ^{거리고 미워함.}가 ^{거리고 미워함.}눕더란다. ^{거리고 미워함.}그 ^{거리고 미워함.}배를 ^{거리고 미워함.}건드리지 ^{거리고 미워함.}않도록 ^{거리고 미워함.}반듯이 ^{거리고 미워함.}눕는데 ^{거리고 미워함.}아구 ^{거리고 미워함.}배야 ^{거리고 미워함.}소리를 ^{거리고 미워함.}복고개*가 ^{거리고 미워함.}터지라고 ^{거리고 미워함.}내지르며 ^{거리고 미워함.}냉골에서 ^{거리고 미워함.}이리 ^{거리고 미워함.}때굴

저리 ^{거리고 미워함.}때굴 ^{거리고 미워함.}구르며 ^{거리고 미워함.}혼자 ^{거리고 미워함.}범석이다. ^{거리고 미워함.}그러나 ^{거리고 미워함.}뺨 ^{거리고 미워함.}위로 ^{거리고 미워함.}먹은 ^{거리고 미워함.}것을 ^{거리고 미워함.}꼬약꼬약 ^{거리고 미워함.}도르고는 ^{거리고 미워함.}필경 ^{거리고 미워함.}까무러쳤으리라. ^{거리고 미워함.}얼굴이 ^{거리고 미워함.}해쓱해지며 ^{거리고 미워함.}사지가 ^{거리고 미워함.}축늘어져 ^{거리고 미워함.}버린다. ^{거리고 미워함.}이 ^{거리고 미워함.}서술에 ^{거리고 미워함.}어머니는 ^{거리고 미워함.}그의 ^{거리고 미워함.}표현대로 ^{거리고 미워함.}하늘이 ^{거리고 미워함.}무너지는 ^{거리고 미워함.}듯 ^{거리고 미워함.}눈앞이 ^{거리고 미워함.}깜깜하였다. ^{거리고 미워함.}그는 ^{거리고 미워함.}딸을 ^{거리고 미워함.}붙들고 ^{거리고 미워함.}자기도 ^{거리고 미워함.}어이구머니 ^{거리고 미워함.}하고 ^{거리고 미워함.}울음을 ^{거리고 미워함.}놓고 ^{거리고 미워함.}이를 ^{거리고 미워함.}어제 ^{거리고 미워함.}이를 ^{거리고 미워함.}어제 ^{거리고 미워함.}몇 ^{거리고 미워함.}번 ^{거리고 미워함.}그래 ^{거리고 미워함.}소리를 ^{거리고 미워함.}치다가 ^{거리고 미워함.}아무도 ^{거리고 미워함.}돌봐 ^{거리고 미워함.}주러 ^{거리고 미워함.}오는 ^{거리고 미워함.}사람이 ^{거리고 미워함.}없으니까 ^{거리고 미워함.}허겁지겁 ^{거리고 미워함.}공두박질을 ^{거리고 미워함.}하여 ^{거리고 미워함.}밖으로 ^{거리고 미워함.}뛰어나왔다. ^{거리고 미워함.}그의 ^{거리고 미워함.}생각에 ^{거리고 미워함.}이 ^{거리고 미워함.}급증을 ^{거리고 미워함.}돌리려면 ^{거리고 미워함.}점쟁이를 ^{거리고 미워함.}불러 ^{거리고 미워함.}경을 ^{거리고 미워함.}읽는 ^{거리고 미워함.}수밖에 ^{거리고 미워함.}다른 ^{거리고 미워함.}도리가 ^{거리고 미워함.}없을 ^{거리고 미워함.}듯싶어서이다. ^{거리고 미워함.}물론 ^{거리고 미워함.}대낮부터 ^{거리고 미워함.}아주 ^{거리고 미워함.}위급한 ^{거리고 미워함.}병. ^{거리고 미워함.}옥이 ^{거리고 미워함.}어머니가 ^{거리고 미워함.}옥이의 ^{거리고 미워함.}병을 ^{거리고 미워함.}낫게 ^{거리고 미워함.}해 ^{거리고 미워함.}줄 ^{거리고 미워함.}것이라 ^{거리고 미워함.}기대하는 ^{거리고 미워함.}인물(병구).



김유정, 「떡」

북을 뚜드려 가며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점쟁이의 말을 들어 보면 과식했다고 죄다 이래서는 살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이것은 음식**
↳ 당대 농민들의 무지와 판단력 부족을 드러냄.

에서 난 병이 아니라 늘 따르던 동자상문*이 어쩌다 접해서 일테면 **귀신의 놀음**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건대 옥이가**
↳ 봉구가 아픈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 옥이가 보이는 증세에 대해 봉구가 진단한 원인.

도사댁 문전에 나왔을 제 후 귀신이 접했는지도 모른다 왜냐 그러면 옥이는 문 앞 언덕을 내리다 고만 눈 위로 **낙상을** 해서 곧 한참을
↳ 도사댁 문전(門前)을 나오자마자 옥이가 과식으로 인한 병증을 보였음. 봉구의 말에 대한 부정거침. ↳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침.

꿈쩍 않고 고대로 누웠었다. 그만치 몸의 자유를 잃었다. 다시 일어나 눈을 몇 번 털고는 걸어 보았다. **다리는 천 근인지 한번 딛으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다. 눈가풀은 뻑뻑거리고 게다가 선하품은 자꾸 터지고. 어깨를 치올리어 여전히 식, 식, 거리며 눈 속을 이렇게 조
↳ 옥이가 집에 돌아오던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 묘사. 현상감을 높임.

심조심 걸어간다. 빼끗만 하였다가는 배가 터진다. 아니 정말은 배가 터지는 그 염려보다 우선 배가 아파서 빼끗도 못 할 형편. 과연
 옥이의 배는 동네 계집들 말마따나 **혈 없이 애 밴 사람의, 그것도 만삭된 이의 괴로운 배** 그것이었다. 개울 길을 내려오자 우물이 눈
↳ 과식한 옥이의 배를 동네 계집들이 비유한 표현.

에 띄자 애는 갑작스레 **조갈**을 느꼈다. 얹드려 바가지로 한 모금 꿀꺽 삼켜 본다. 이와 목구멍이 다만 잠깐 저렸을 뿐 물은 곧바로 다
↳ 입술이나 입 안, 목 따위가 라는 뜻이 몹시 마름.

시 넘어온다. 그뿐 아니라 뒤를 이어서 **떡이 꾸역꾸역 쏟아진다.** 잘 씹지 않고 열김에 삼킨 떡이라 삭지 못한 그대로 덩어리 덩어리
↳ 무리하게 삼킨 떡들을 토해 내는 모습.

넘어온다. 우물 전 얼음 위에는 삼시간에 떡이 한 무더기. 옥이는 다시 눈 위에 기운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던 애가 어떻게 제집**
엘 왔을까 생각하면 여간 큰 노력이 아니요 참 강한 모험이라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 쓰러지고 떡을 토해 내고도 집으로 돌아온 옥이에 대한 '나'의 평가. 반어적 진술. ↳ 해가 막 넘어가는 때.

내가 옥이네 집을 찾아가간 것은 이때 썩 지어서*이다. **해님의** 바람은 차고 몹시 떨렸으나 **옥이에 대한 소문이 흉함으로** 펍 궁금하였
↳ 딸의 봉변에 놀라고 딸을 안쓰러워하는 옥이 어머니. ↳ 옥이의 봉변이 동리의 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음.

다. 허둥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 보니 **어머니는 딸 머리맡에서 무르팍에 눈을 비벼 가며 여지껏 훌쩍거리고 앉았다.** 냉병은 아주 가
↳ 하체를 차게하여 생기는 병증. 옥이 어머니가 앞던 증상.

셨는지 노상 노렇게 고민하던 그 상이 지금은 **불과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높은**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다. 팔짱
↳ 얼굴빛이 슬기운을 띠거나 혈기가 좋아서 붉그레하다. ↳ 딱히.

을 떡 찌르고는 맞은 벽을 뚫어 보며 무슨 결기나 먹은 듯이 **바이루** 위엄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일찍 나온 것을 보면 나무도 잘 판 모**
↳ 바로. ↳ 딱히가 나무를 팔고 집에 돌아왔음.

양. 얼마 후 높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여보게 참말 죽지는 않겠나**하고 물으니가 봉구는 눈을 깜박깜박하더니 죽기는 왜 죽어 한
↳ 옥이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면서 딱히가 봉구에게 하는 말.

나절토록 경을 읽었는데 하고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 대답이다.
↳ 이도 저도 아닌 중간치기.

- * 난 상부른가: 나는 성실은가.
- * 비대발괄: 하소연하여 간절히 청함.
- * 주악: 웃기떡의 한 가지. 참쌀가루에 대추를 잘게 다져 섞어 꿀에 반죽하여 깨나 팥 등의 소를 넣고 송편처럼 빚어서 기름에 지진 떡
- * 북고개: 보꼭. 지붕 밑과 천정 사이의 빈 공간.
- * 동자상문: 사내아이의 죽은 귀신.
- * 지어서: 지나서.

작품의 특징

- 당시 민중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 음식으로 인해 봉변을 당하는 어린 옥이를 농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물인정한 세태를 풍자함.
- 서술의 초점을 '옥이'에게 맞추어 사건을 전개함.
- 증언을 인용 시 별도의 인용 표지없이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묘사함.
- 기본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시점의 혼란과 관소리 사설의 서술 기법이 나타남.
- '나'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거리를 유지한 채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드러냄.
- '었다' 등의 과거 시제와, '-나다' 등의 현재 시제를 혼용하고 있음.



이래준, 「돌다리」

- 갈래 : 단편소설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 배경 : 시간-일제 강점기 말, 공간-농촌 마을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돌다리
- 주제 : 땅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비판.
- 인물과 소재 :

<땅> 갈등의 계기

<아버지> - 시골의 농부 - 천지 만물의 근거로 생각. - 본질적 가치로 생각. - 삶의 터전으로 생각 - 전통적 인물	↔	<아들(창섭)> - 도시의 의사 - 금전적 가치로 생각 - 물질적 대상으로 생각 - 실용적 측면으로 생각. - 근대적 인물
↓		↓
<돌다리> - 만들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 전통적, 정신적 가치관 상징 - 아버지의 표상		<나무다리> -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돌다리보다는 불안정함. - 근대적, 물질적 가치관 상징 - 창섭의 표상

#EBS

해제

이 작품은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난 소설이다.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땅이 천지 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물이다.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가치관과 태도는 일제 강점하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민족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땅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비판

전체 줄거리

서울에서 권위 있는 의사인 창섭은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농토를 팔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내려온다. 창섭은 땅을 정성스레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로 향하다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난다.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니 땅을 팔자고 설득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죽기 전에 땅을 농민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을 하고,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 세계와의 결별을 체험하고 서울로 올라간다. 다음 날 아버지는 고쳐 놓은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하면서 땅을 지키는 삶이 천리(天理)임을 되새긴다.



이태준, 「돌다리」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 아들 창섭의 직업과 망투를 통해 아버지와 대조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함.

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이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

↳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임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

↳ 아버지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임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엄한 것, 엄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

↳ 값이 싼

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준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함.

↳ 땅을 교환 가치로만 여김.

것으로 살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 사물이나 대상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남. 요약적 제시.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 땅을 팔자는 창섭의 의견에 즉각 답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땅을 파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드러냄.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왔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이요?”

↳ 돌다리보다 튼튼하지는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음.

↳ 돌다리가 가족의 삶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

↳ 자연물에도 인정을 갖고 대해야 함. 자연에 무관심한 현대인의 태도 비판.

↳ 돌다리가 가족의 삶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맹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 “네?”

“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신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강한 애착을 보여 줌. 창섭과의 갈등의 원인.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엿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닮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 땅을 교환 가치, 금전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는 아들과 세태에 대한 비판.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치

↳ 땅에 대한 아버지의 관점. 전통적 가치관.

↳ 땅을 재산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 루밖에 보지 않드라.” /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뭇루? 밭에 가 절하구 눈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구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제 하늘을 파나 닮없는 거다.” / “…….”

↳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보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드러남.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명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밭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앉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텐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

↳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

로 치면 후례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걸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 땅 덕분에 먹고사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땅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고 여김.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 서양 의술을 배운 의사.

↳ 아버지가 지주들을 비판하는 이유.

창섭은 입이 얼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중

↳ 유구무언(有口無言)

↳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깨달음.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 땅에 대해 절대적 믿음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 땅을 팔고자 하는 계획.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이태준, 「돌다리」

예로부터 **인술**이라하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 “…….”

↳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란 뜻으로, 의술을 이르는 말.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확인하는 인**

↳ 아들의 일을 인정함.

↳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리는.

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 가업을 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

(중략)

↳ 땅을 팔아 병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창성의 바람.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예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더구.”

↳ 땅을 삶의 러전이자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고, 이를 가꾸고 지켜 나가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 아버지의 신념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창성의 생각이 드러남.

그러나 창성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 아버지의 신념을 인정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생각은 가질 수 없는 데서 오는 모순된 감정.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 금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

* 전장: 논밭.



작품의 특징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임.
- 대조적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 근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을 제시함.



안수길, 「제3인간형」

- 갈래 : 단편소설
- 성격 : 사실적,
- 배경 : 6·25 전쟁, 부산
- 시점 : 전지적 시점(부분적으로 1인칭 시점)
- 제재 : 6·25 전쟁을 겪은 지식인의 고뇌
- 주제 : 6·25 전쟁으로 인한 지식인의 고뇌와 삶의 유형
- 작품 제목과 작중인물의 인물 유형 :
 - 제1인간형(전쟁으로 사명을 포기한 유형)
 - 조운: 문학에 대한 사명을 느끼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독특한 자신의 세계를 지닌 작가
 - 문학의 길을 버리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 큰돈을 벌어들이며 경제적으로 성공함.
 - 제2인간형(전쟁을 겪으며 사명을 찾아가는 유형)
 - 미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명량한 소녀로,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우며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님.
 - 집안의 몰락으로 문학의 꿈을 접고 생활인으로 변모하지만 끝내 자신의 사명을 찾음.
 - 제3인간형(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는 유형)
 - 석: 문학을 마음의 지주로 삼고 있고, 문학을 삶의 목표로 여기는 문학 청년
 - 생계를 위해 교편을 잡음. 생활과 문학 사이에서 공허해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함.
- 소재 :
 - 검정넥타이
 - 문학에 대한 사명을 느끼던 과거 조운의 삶 상징.
 - 조운의 각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
 - 조운과 미이가 공유하는 추억의 매개체.
 - 전쟁 전 조운이 지닌 면모에 부합하는 사물.
 - 조운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미이의 바람을 드러내는 소재.
 - 석이 조운에게 기대하고 있던 삶의 모습과 관련 있는 소재.

#EBS

해제

작품은 6·25 전쟁을 겪은 지식인 작가를 주인공으로 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탐구한 전후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한때 작가였으나 운수업으로 부를 획득하며 정신적 가치를 잃고 타락한 조운, 그를 따르던 문학소녀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집안 몰락 이후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미이, 그리고 현실의 생계유지를 위해 교직에 종사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미련만 갖고 있는 석,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 세 가지 삶의 유형을 통해,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지상 과제가 되는 비극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6·25 전쟁으로 인한 지식인의 고뇌와 삶의 유형

전체 줄거리

6·25 전쟁 전에 작가였던 석은 전쟁 후에 피란지인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시 글을 쓰기를 희망하였으나 현실에 치여 그러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전 동료 작가였다가 전쟁 때 소식이 끊기고 온갖 소문만 무성할 뿐이던 친구 조운이 그를 찾아온다. 석은 조운이 타고 온 차에 동승해 요리를 먹으러 가고, 술을 마시며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으나, 조운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며 미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명량한 성격의 문학소녀로, 조운을 따르던 사람이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 미이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전쟁 후 사업에 성공한 조운은 부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 조운은 미이에게 다방을 차려 주겠다고 제의하지만, 미이는 생활할 여유를 달라고 한다. 며칠 후 조운을 만나기로 한 날 미이는 간호 장교에 지원하여 시험을 보러 간다는 내용의 편지와 검정 넥타이를 담은 종이 꾸러미를 다방에 남겨 두고 떠난다. 이를 계기로 조운은 자신의 정신적 타락을 뼈저리게 느낀다. 조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석 또한 미이에게 강한 인상을 받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안수길, 「제3인간형」

“십 년은 더 늙은 것 같네. 그간 고생 몹시 했지? 학교에서 문 열구 나오는 자넨, 자네루 알아 못 보았었네. 어쩌면 그렇게 훈장 티가 꼭 났나?”
↳ 선생 티가 나서 석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조운의 말.

“일 년 못 돼 훈장 티가 배어 뵈다면야 슬픈 일이네마는…… 알아 못 보긴 자넨 게 아니라 내였네. 상큼한 콧날과 움푹 팬 눈이 자네 얼굴의 특징이었었는데, 콧날은 없어지고 눈마저 변했다면 통 알아 못 볼 뻔했네.”
↳ 인상이 달라져 조운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석의 말.

“…….”
“그렇게 변한 자네의 삼 년이 알고프네. 6·25 나던 때, 신문사서 갈라진 게 마지막이 아닌가?”
↳ 석과 조운이 헤어져 있었던 기간.

“그랬던가? 내 애긴 차차 하고 자네 지낸 일 들어 보세.”
그러는데 요리가 들리어 들어왔다.

“자, 들게.” ↳ 배갈. 교양주를 가리킴.
흰 알잔에 따른 빼주가 쿡 쿡을 찌른다. 둘은 함께 들어 조금씩 마시었다. 조운의 젓가락은 해삼 요리에 먼저 갔다. 호르몬제라고 중국 요리를 먹을 때마다 죄 없는 화젯거리가 되는 음식이다.

석은 문득 그것을 생각하고 빙그레 웃음을 띠는데, 조운은 큰 놈 한 개를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면서,
“삼 년 동안 나는 타락했네.” ↳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문학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세속적 성공을 위해 살았다는 자기 고백.
하였다.

“타락이라니? 난 자네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졌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판인데…….”
↳ 작품 세계를 의미함.

조운은 얼굴에 또 복잡한 표정이 서리더니, 잔에 술을 부어서 먼저 들이마시고 빈 잔을 석에게 건넸다.
잔은 왔다 갔다 하였다. ↳ 심리적 갈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함.

석은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거나해 간다. 한 달 만에 접구하는 것이라 좋은 안주에 술맛을 한결 돋우었다.
말하기 꼭 좋았다. ↳ 입에 대는 먹.

↳ 앞으로 둘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갈 것임을 암시.
“나는 이틀테면 넓은 데서 좁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움짱달짝 못 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터이지마는, 자네야 넓은 세계에 활활 날
↳ 생계 유지를 위해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처지.

아다니는 셈 아닌가? 작품 세계가 커지고 힘차리라고, 오늘 자네를 대할 때부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네.”

“작품?” ↳ 되묻는 말을 통해, 생소하게 들릴 만큼 '작품'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드러냄.
“그래!”

잠깐 머리를 푹 숙이었다가 조운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벗어 뭇에 걸어 놓았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짠 것을 끄집어냈다.

“이걸 보게.” ↳ 조운이 석을 찾아오게 된 계기. 조운과 석이 전쟁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
내미는 종이 꾸러미를 펴 보고 석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뭐가?” ↳ 조운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함. 각성의 매개체.
거기에는 새것인 검정 넥타이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났다.
봉투에는 ‘조운 선생님’이라고 틀림없는 여자의 글씨가 단정하게 써여 있었다.
↳ 미이

어안이 빙빙해 앉았는 석에게, 조운은 편지를 집어 알맹이를 내어 주었다.
↳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읽어 보게.”
“읽어두 괜찮은가?”

“읽게.” ↳ 문장이나 편지에 나타난 대강의 내용.
펴 보니 간단한 문면이었다.

↳ 시대적 요구와 관련하여 사명을 발견함.
선생님 호의는 뼈에 사무치오나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사이 저는 선생님 몰래 간호 장교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시
↳ 다방을 차려 주겠다는 제안. 전쟁을 겪으며 성숙한 미이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된 일.

험은 월요일 대구에서 치르나, 준비 때문에 지금 떠납니다…….
그때 그 넥타이는 집과 함께 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검정 넥타이를 매셔야 겉에 어울립니다. 안녕
히. ↳ 작가로서 조운이 지닌 면모.

미이 올림

“미이?”

석은,
“그 미이인가?” ↳ 미이가 석과 조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음.

하고 가볍게 놀라면서 물었다.



안수길, 「제3인간형」

“그렇네.”

미이는 조운을 따라다니던, 석도 잘 아는 문학소녀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미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명망한 문학소녀였으나, 전쟁 중 집안이 몰락하자 부산으로 피란을 와서 취직자리를 구하던 중 우연히 조운을 만나게 된다. 조운은 미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를 도울 방법을 궁리해 본다.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 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이의 명망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 조운 ↳ 미이를 도울 방법이나, '간호 광고'와 대립되는 속물적인 해결책.

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다음 날 오 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적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었네. **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
↳ 다방 증업원. ↳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므로.

교이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면 미이가 첫
↳ 사명을 깨닫고 선택한 방법, '다방'과 대립됨. ↳ '미이'가 사명을 위해 간호 광고의 길을 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

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 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삼 년 동안**
↳ 조운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 문학을 통해 진정한 작가 정신을 추구하는 삶.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하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
↳ 조운과 미이의 삶의 태도 변화의 현실적 원인. ↳ 천박하고 경솔하다.

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굴
↳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 전쟁을 거치면서 변한 미이와 자신을 대조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조운.

러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견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 조운이 석을 찾아온 이유. ↳ 나는 다방을 ~ 때문일세 : 조운이 석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직접 인용함.

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이젠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된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 조운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꽂 차 있었다.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 조운을 만난 후 석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할 만큼 충격을 받음.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 '미이'의 삶의 태도에 감명을 받아 내면이 팽 차오르고 있음을 느낌.

조운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안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 평소와 다른 모습.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나는?**'
↳ 제1인간형, 조운의 모습. ↳ 제2인간형, 미이의 모습.

↳ 타이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질문.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 가는 나는?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 제3인간형(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유형). '나(=석)'의 모습.

작품의 특징

- 시대 현실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암시함.
- 전후 타락한 인간의 문제를 그리고 있음.
- 운명적 조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냄
- 등장인물의 내면 의식에 대한 묘사 위주로 서술함.



손창섭, 「비 오는 날」

- 갈래 : 전후소설, 단편소설
- 성격 : 허무적, 실존적, 사실적
- 배경 : 시간- 6·25전쟁기 1·4후퇴 이후 장마철, 공간-피란지 부산의 변두리.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전쟁으로 인한 절망적 현실과 무기력하고 황폐한 인간의 삶
- 인물 :
 - 원구 : 이 작품의 서술자로 동욱의 친구. 그 역시 월남해 리어카로 잡화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동욱 남매에게 애정을 베푸는 인물
 - 동욱 : 영문학을 전공한 작가 지망생으로 1·4 후퇴 때 동생 동욱과 함께 월남.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 주문을 받아 생계를 꾸려 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군에 입대하는 인물
 - 동욱 : 동욱의 여동생. 소아마비로 이상 성격이 된 동욱의 동생. 생계 유지를 위해 초상화를 그리지만 오빠가 가출하자 그녀 역시 떠나 버리는 정적 인물
- 인물의 불구성 : 전후 사회에 만연했던 허무주의 영향.

동욱	동욱	원구
가난과 책임감으로 인해 힘들어함. → 정신적 불구 상징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어,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짐. →정신적, 육체적 불구 상징	동욱 남매를 동정만 할 뿐, 자신의 피로감에 짓눌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

- ‘비 오는 날’의 의미 :
 - 작품의 지배적인 배경으로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 조성함.
 - 전쟁 이후의 암담하고 무기력한 사회의 분위기 상징.
 - 암울하고 무기력한 주인공들의 삶과 내면 의식과 불행 암시.
 - 원구가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
- ‘폐가와 같은 집, 황폐한 건물’의 의미 :
 - 작품 전체의 지배적인 분위기인 암울함을 나타내는 공간이자 동욱 남매의 비참한 삶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

#EBS

해제

이 작품은 비 내리는 피란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1950년대 전후 소설로, 친구인 동욱과 그 여동생 동욱에 대해 회상하고 있는 원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이 작품은 ‘비 오는 날’의 음산하고 우울한 풍경을 통해 전쟁이라는 절망적 시대상과 그로 인한 인물들의 피폐한 심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절망적 현실과 무기력하고 황폐한 인간의 삶

전체 줄거리

어느 날 원구는 피란지 부산의 거리에서 우연히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동욱을 만난다. 동욱은 미혼인 여동생 동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동욱이 그린 초상화로 미군 부대를 드나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원구는 처음으로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을 찾아가지만 동욱만이 차갑게 원구를 맞이한다. 원구는 동욱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고, 동욱이 매우 냉담하게 동욱을 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 뒤 비가 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가끔 동욱 남매의 집을 찾는다. 그러는 사이 동욱에게 마음이 끌리고, 동욱 또한 원구에 대해 친근감을 보인다. 동욱은 동욱을 보살피 줄 이가 자기밖에 아무도 없으며 동욱을 측은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를 보기만 하면 화가 치민다는 말을 하며, 원구에게 동욱과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다. 며칠 뒤 원구는 동욱에게서 초상화 주문 작업을 그만두었다는 것과, 동욱이 주인 노파에게 자기 몰래 빌려준 2만 원의 빚을 떼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오랜 장마로 장사가 되지 않아 마음이 어지러웠던 원구는 동욱의 집을 찾아가지만, 새 주인으로부터 동욱은 아마도 군대에 끌려간 듯 며칠째 소식이 없고, 동욱 또한 혼자 며칠 밤을 울다가 주인이 나무라자 원구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 편지는 부주의로 그만 없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얼굴이 반반하니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새 주인의 말에 분노를 느끼던 원구는 결국은 그 분노가 자신에게 되돌아옴을 느끼며 무기력하게 돌아선다. 그 뒤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동욱 남매 생각에 우울해지곤 한다.



손창섭, 「비 오는 날」

[앞부분의 줄거리]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동욱 남매를 떠올린다. 6·25 전쟁 피란지 부산의 거리에서 원구는 친구 동욱을 만나

↳ 회상적 구성

데, 그는 여동생 동욱과 함께 살면서 동욱이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원구는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 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동욱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느낀다. 그 뒤 원구는 종종 동욱의 집에 드나들며 동욱과도 점차 친해진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

↳ 동욱

↳ 바지

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꾸깃살이 젖어 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그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숭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였다. 그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갔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 동욱의 옷차림과 신발 상태 묘사. 동욱의 극한 빈곤의 상황 환기.

↳ 원구의 심리 직접 제시.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동욱을 안내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 얼근해지자 동욱은 초상화 ‘주문 도리(반음)’를 폐업했노라고 했다. 요

↳ 간접 인용 형식.

↳ 동욱 남매의 생계유지 수단.

즘은 양키들도 아주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 간접 인용 형식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 순찰 장교에게 걸려서 하룻

↳ 초상화 주문 제작을 그만두게 된 까닭.

↳ 극도의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고난을 부각함.

밤 명키 하우스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

↳ 유치장을 의미함.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상황임으로.

다는 것이다. 분실계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회로 파출소로 사오 차나 쫓아다니러 봤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까짓거 나중에는 삼수갑산열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 그래 차라리 군에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

↳ 자포자기의 심정이 됨.

마침 통역 장교를 모집하기에 그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라고 했다.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니까 동욱은 엉글엉글 웃으며, 수속

↳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려는 동욱의 노력. 동욱이 느끼는 무력감을 심화하는 소재.

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동욱은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을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출

↳ 동욱이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이유.

입을 앓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

↳ 동욱이 인간에 대한 모멸을 느끼고 스스로를 유폐시킴.

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 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

↳ 동욱이 원구에게 마음을 연 까닭.

부더의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찢찢맨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노라 했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랑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하구말구, 하고 동욱은 고개를 주억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 동생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는 동욱.

↳ 동욱과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나와서 동욱은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기어코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동욱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한번은 탄 불일로 동래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맛비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

↳ 전체적으로 음습하고 우울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

다. 우산을 접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 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은 담요로 머리까지 꼭 뒤집어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나 저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이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 버렸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사나운 자여서, 당

↳ 동욱이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느끼고 더욱 절망하게 되는 사건.

↳ 여세고 사나운.

장 방을 비워 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꽂이 같은 년아, 글썽 이게 집이라구 믿구 돈을 쥐, 하고 발길로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이만 환이면 구화로 얼만 줄 아니, 이백만 환이다, 이백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나구? 그래 내가 없으면 내년이 굶어 죽지 않구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독립으루 살아? 동욱은 다시

↳ 누이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에 분노한 동욱의 말.

생각을 해도 악이 받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

↳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화를 이용하는 동욱.

↳ 좌불안석인 상황.

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동욱이 이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리고 누워 있다고 하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이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 있거나 않는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

↳ 원구의 심리 직접 제시.

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 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 보겠노라고 하니, 동욱이가 인가(人家) 많

↳ 동욱 남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원구의 태도.



손창섭, 「비 오는 날」

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딴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의 대답이었다.

↳ 외부와 단절된 공간. 동욱이 피해 의식으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소재.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놓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밀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 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 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

↳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음습하고 우울한 분위기와 조응하는 인물의 심리. 작품의 우울한 분위기와 연관된 소재. 동욱 남매를 떠올리고 만나러 가게 되는 계기.

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 힘겨운 삶 속에서 느끼는 원구의 자기 연민.

것이였다. 점심때가 거진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손 속을 솔로 씻어 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솔과 통조림**을 사 들고 찾아갔다. **낮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

↳ 동욱 남매를 위로하고자 산 물건. 같은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을 향한 원구의 연민의 태도. '주인 사나이'의 태도 변화의 원인.

러질 듯이 빗속에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저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

↳ 전쟁으로 겪게 된 빈민들의 극빈하고 위태로운 삶의 처지 상징.

로 기어 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

↳ 도망간 노파에게 집을 산 새 집주인.

↳ 외모가 풍기는 인상에 대한 묘사.

땀히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십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丁) 뭐라는 사람이나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였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욱 역시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였다. 동욱이가 안 돌아오는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은 바로 이삼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였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 생각지 못한 황재에 기분이 좋아짐. 동욱 남매에 대한 정보를 더 전하는 계기가 됨.

↳ 솔과 통조림.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이거 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헤벌어졌다.** 그러고는 자기 여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였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러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 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을 않**

↳ 동욱이 원구에게 남김.

고 멍청히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십중팔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욱은 아

↳ 동욱 남매에 대한 죄책감과 자학으로 인한 행동.

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다음 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 버리었다는 것이다. **죽이나**

↳ 동욱의 상황에 대한 원구의 비관적인 예측. 육체적 장애로 현실 상황 대처 능력이 없음을 보여 줌.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러 가지고

↳ '주인 사나이'가 내세운 가솔 증거. 동욱이 자살할 생각이 없었으리라는 추측의 근거.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지껄이는 것이였다. 얼굴이 고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펄쩍 들어**,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 근의 무게로

↳ 분노가 일어.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었다.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

↳ 동욱 남매의 일에 자책감을 느끼는 원구.

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 넝쿨 우거진 밭두둑 길을 밟고 난 사람 모양 허전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가는 것이였다. → 동욱의 처지를 짐작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원구 → 원구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인물임을 보여줌.



손창섭, 「비 오는 날」



작품의 특징

-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환기함.
- 작가 특유의 어휘와 긴 호흡의 문장을 사용함.
-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원구의 심리를 직접 제시함.
-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전달함.
- ‘~라고 했다.’, ‘~는 것이다.’의 간접 인용의 방식을 통해 인물의 발화 내용을 제시함.
- ‘그 뒤에’, ‘그 뒤로는’처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복수의 사건을 연결함.
- 장마철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함.
- 원구라는 인물이 동욱 남매의 불구적 삶을 회상하는 구성으로 서술됨.
- 동욱 남매의 행방을 묘연하게 처리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함.
- 음울한 분위기와 비정상적 인물이 등장하는 불구성은 전후 문학의 상징적 의미임.
- 전후 무기력한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